한국학연구 제66집 | 171~195쪽 | 2022.8.

『해조신문』의 「본국력사」 고찰*

반재유**

〈차 례〉

1. 서론
2. 주필 장지연과 상고사 저술
3. 상고사 풍속서술과 문답식 표기
4. 결론

[국문초록]

『해조신문』은 1908년 2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海參崴, Vladivostok)에서 발행된 한인신문이다.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로서 인지도가 높았던 장지연을 창간초기부터 주필로 영입하였으며, 러시아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수많은 발매소를 설치하여 신문을 보급한 사실을 통해, 단순히 러시아 지역 내 한인교포를 위한 신문이 아닌 국내여론의 형성과 국권회복의 일익을 담당하던 매체로서 중요한 사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해조신문』에 실린 개별 연재물들은 『해조신문』의 성향이나 주필의 편찬의식 등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중 창간 초기부터 연재된 「본국력사」는 국민정신의 배양 및 민족교육을 위해 상고사 연재를 시도했다는 점과 함께, 개신유학자의 상고사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본국력사」는 저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연재물에 대한 집필 배경이나 의미 등을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국력사」의 연재 시기와 출전, 내용상의 특징 등을 근거로 장지연을 저자로 추정하고, 그가 상고사의 풍속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답식표기 등 독특한 서술방식들을 검토하며 『해조신문』 속 상고사 연재의 의미를 논의해 보았다.

「본국력사」의 연재 속에 담으려 했던 상고사의 풍속과 이를 전달하기 위한 서술방식 등은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581). 논문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 HK연구교수

당대 일제의 국내 신문 규제에 대항하여 민지의 계발 및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려 했던 장지연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획이며, 『해조신문』의 성격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서 「본국력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제어] 해조신문, 장지연, 러시아 한인, 블라디보스토크, 문답식표기

1. 서론

본국의 력ᄉᆞ 디지라 ᄒᆞᄂᆞᆫ 것은 사ᄅᆞᆷ마다 ᄋᆡ국정신을 격발케 ᄒᆞᄂᆞᆫ 긔계라 력ᄉᆞ상에 긔ᄌᆡᆨᄒᆞᆫ ᄉᆞ실은 다 본국의 국톄를 놉히고 국민의 특별셩질을 발달케 ᄒᆞ며 ᄯᅩᄒᆞᆫ 옛젹 츙신 의ᄉᆞ의 거룩ᄒᆞᆫ 힝실을 포챵ᄒᆞ야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감동케 ᄒᆞ며 영웅호걸의 굉쟝ᄒᆞᆫ ᄉᆞ적을 진슐ᄒᆞ야 국민의 지긔를 고격케 ᄒᆞ고 ᄯᅩᄒᆞᆫ 본국의 고금변쳔과 흥ᄆᆡᆼ셩쇠의 ᄉᆞ적을 긔억ᄒᆞ야…[1]

1908년 2월 26일,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海參崴, Vladivostok) 개척리(開拓里)에서 『해조신문』이라는 명칭의 신문이 간행된다. 개척리는 1874년 한인들이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곳으로서, 1905년 이후부터 1910년까지 국권회복운동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2] 이곳에서 1908년 2월 26일 창간된 『해조신문』은 비록 발행기간이 3개월 남짓(1908.2.26~5.26.)에 불가했지만, 러시아 거주 한인들이 만든 최초의 한글신문이자 『대동공보』(1908.11.18.~1910.9.10.)·『권업신보』(1912.4.22.~1914.8.30.) 등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 근대 신문으로서 『해조신문』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실제 해조신문사의 창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민회를 중심으로 최봉준으로 대변되는 러시아지역 토착세력과 정순만(鄭淳萬) 등의 정치적 망명자들 간의 협력과 더불어, 당시 러시아정부의 반일적 태도, 한인사회 내의 요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맞물려있다.[3] 또한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로

1) 「논설: 學校의 精神은 敎科書에 在홈」, 『해조신문』, 1908.5.14.
2) 박환,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선인, 2019, 44~50쪽 참조.
3)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21~36쪽 참조.

서 인지도가 높았던 장지연을 창간초기부터 주필로 영입하였으며,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성진항', '원산항', '한성 대한매일신보사', '인천항 축현 개신책사', '평양 일신학교', '개성남문 내 홍학서포', '삼화항 축동', '재령읍 제중원', '안주읍 법교', '수천읍 시무학교', '중화읍 사립학교', '선천읍' 등 수많은 발매소를 설치하여 신문을 보급한 사실[4] 등을 통해, 단순히 러시아 지역 내 한인교포를 위한 신문이 아닌 국내여론의 형성과 국권회복의 일익을 담당하던 매체로서 중요한 사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해조신문』의 간행과정,[5] 내지 구성,[6] 논설,[7] 광고[8] 등의 특징들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러시아 지역 한인민족운동사 연구의 일환으로 신문을 소개하거나 몇몇 관련 기사를 인용하는 것[9] 외에는 해당 문헌에 대한 깊은 논의들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문에 실린 개별 연재물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데, 해당 작품들은 해조신문의 성향이나 재러 한인의 계몽, 주필의 편찬의식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중 창간초기부터 연재된 「본국력사」는 국민정신의 배양 및 민족교육을 위해 상고사 연재를 시도했다는 점과 함께, 개신유학자의 상고사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당시 많은 신문연재물들이 그러했듯이 「본국력사」도 집필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해당 연재물에 대한 집필 배경이나 의미 등을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본국력사」의 저자에 대해 추론해보고, 저술동기 및 배경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국력사」의 독특한 서술방식의

4) 「본사특별광고-본국각지발매소」, 『해조신문』, 1908.2.26.~1908.5.26.

5) 박환, 「재러한인 민족운동의 태동과 『해조신문』의 간행」,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박환, 「구한말한인언론; 『해조신문』」,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6) 구명숙, 「해조신문과 공립신보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1.

7) 김대룡, 「해조신문의 간행과 교육론」, 『한국사상과 문화』 6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8) 안종묵, 「히죠신문의 광고에 관한 일 연구」, 『한국언어학회』 46-5, 한국언어학회, 2002.

9) 이명화, 「露領地方에서의 韓人 民族主義敎育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이동언, 「露領地域 初期 韓人社會에 관한 硏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임경석, 「한말 노령의 애국계몽운동과 블라디보스톡 한인 거류지」, 『성균사학』 12·13, 성균관대학교 사학회, 1997; 박걸순, 「연해주한인사회의 갈등과 정순만의 피살」, 『독립운동계의 3만 정순만』, 경인문화사, 2013 등.

특징과 출전 등을 확인하며, 『해조신문』 속 상고사 연재의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필 장지연과 상고사 저술

『해조신문』은 정순만과 장지연이 주필로 있었던 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정순만은 해조신문사 창간과 함께 1대 주필과 총무를 겸직하였고, 장지연은 1908년 2월 『해조신문』 2대 주필로 초빙되어 제6호(1908년 3월3일자)부터 제63호(1908년 5월 10일자)까지 신문발간에 관여하였다.[10] 당시 장지연은 황성신문사를 퇴사(1906.2)한 뒤, 『대한자강회월보』와 『조양보』 등에서 주필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해조신문』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교포신문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신문간행의 경험이 많았던 장지연이 적임자로 거론되었던 것이다.[11] 이와 더불어 『광무지법』(1907.7.24.)으로 인한 국내 신문의 규제를 피하여 언론활동을 지속하고자 했던 장지연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10~12일자 「기서」에 발표된 『해조신문』의 간행취지서이다.

> 우리나라 국권이 어ᄂᆞ 디경된것과 우리나라가 엇더ᄒᆞᆫ 나라와 관계되ᄂᆞᆫ것과 여러나라에 정치로 교섭ᄒᆞᄂᆞᆫ 일이며 교육ᄒᆞᄂᆞᆫ 리치와 농사ᄒᆞᄂᆞᆫ 리치와 쟝ᄉᆞᄒᆞᄂᆞᆫ 리치와 나무와 즘싱 기르ᄂᆞᆫ 법과 우리나라 츙신렬ᄉᆞ의 ᄉᆞ적과 셔양 력ᄉᆞ에 유명ᄒᆞᆫ 사ᄅᆞᆷ의 힝ᄒᆞᆫ일을 모다 긔록ᄒᆞ야 ᄌᆞ미잇게 날마다 발간ᄒᆞ야 **우리동포의 학문과 지식을 넓히고 실업이 늘어감을 권쟝ᄒᆞ야 국민의 경신을 ᄇᆡ양ᄒᆞ고 국권의 회복을**

10) 김대룡은 앞의 논문(2012, 233~234쪽 참조)에서, 『해조신문』에 장지연이 주필로 명시된 것은 제22호(1908.3.22.)~제63호(1908.5.10.)이지만, 「海港日記(1908.3.2.)」(『張志淵全書』 八, 1986)의 기록을 근거로 제6호(1908.3.3.)부터 주필을 맡아 신문발간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1) 장지연의 초빙은 이범진의 제안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최봉준이 이종호(李種浩)와 박은식을 통해 영입을 성사하였다(박환, 앞의 책, 2008, 17~18쪽 참조).

쥬쟝ᄒᆞ야 …

(「긔셔-해조신문 취지셔 쇽」, 『대한매일신보』, 1908.3.12.)

취지서를 살펴보면 『해조신문』의 발간은 첫째 우리 동포의 학문과 지식을 넓히며, 둘째 실업이 늘어감을 권장하고, 셋째 국민의 정신을 배양하면서, 넷째 국권의 회복을 주장하기 위함이라 명시하고 있다. 『해조신문』의 간행취지서는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라 『황성신문』(1908.3.3. 별보)과 『공립신보』(1908.3.13. 별보)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황성신문』에 실려 있는 취지서는 일부 내용이 검열된 흔적이 보인다.[12] 『대한매일신보』의 「기서」를 통해 검열된 부분을 확인해보면, "오늘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의 자유가 속박되어 토지와 자산까지도 모두 타인에게 돌아가니, 이러하고 보면 노예와 희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자손을 보전하고 종자를 전하지 못하리니 (…)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였으니, 어찌 통곡하지 아니리오, 만일 노예를 면하고자 한다면 우선 새 지식과 새 문견을 힘써야할지니"[13]라고 하여, 삭제된 문장에는 '국민정신의 배양'과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지연은 과거 다양한 신문・잡지 등의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강사상과 자강교육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사, 지리, 국문 등의 '민족교육' 및 여성교육・의무교육・신문화수용 등의 '근대교육'을 강조하였다.[14] 『해조신문』

12) 박환, 앞의 책, 1995, 30쪽 참조.

13) 검열된 내용(진한글씨)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슯흐도다 우리동포여 오늘날 나라이 업셔지고 빅성의 ᄌᆞ유가 속박되야 토디와 지산ᄭᆞ지라도 모다 타인의게 도라가니 이러ᄒᆞ고 보면 ᄎᆡ일신만 노례와 희싱이 될ᄲᅮᆫ아니라 ᄌᆞ손을 보젼ᄒᆞ야 죵ᄌᆞ를 젼ᄒᆞ지 못ᄒᆞ리니 오늘 형셰가 이ᄀᆞᆺ치 급ᄒᆞ거늘 구습만 직히고 아직 목젼에 의식걱졍이나 업스면 소위 공ᄌᆞ왈 밍ᄌᆞ왈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임군이 어ᄂᆞ디졍이되엿ᄂᆞᆫ지 나라이 엇지되여 가ᄂᆞᆫ지 국권을 뉘게 ᄲᅦ앗기엿ᄂᆞᆫ지 빅성과 토디가 뉘것이되엿ᄂᆞᆫ지 취즁인지 몽즁인지 ᄭᆡ닷지못ᄒᆞ니** 슯흐도다 사ᄅᆞᆷ이라ᄒᆞᄂᆞᆫ 것이 금슈보담 신령ᄒᆞ다ᄒᆞ니 금슈도 제몸의 해로운것을 알거든 사ᄅᆞᆷ되고야 엇지 제 눈압헤 당치아니ᄒᆞ엿다고 알지 못ᄒᆞ면 무엇이 금슈보담 낫다ᄒᆞ리오 녯적말에 ᄀᆞᆯᄋᆞᄃᆡ 그 형샹을 못보거든 그 그림ᄌᆞ를 보아라ᄒᆞ엿스니 오늘 우리가 당당ᄒᆞᆫ 대한국 빅셩이라ᄒᆞ겟쇼 **ᄂᆞᆷ의나라 노례라ᄒᆞ겟쇼 아모더러 무러도 나라 망ᄒᆞᆫ 노례라ᄒᆞᆯ지니 노례가되야 노례면ᄒᆞᆯ 싱각을 두지 아니ᄒᆞ면 이러ᄒᆞᆫ 사ᄅᆞᆷ은 노례의 노례라ᄒᆞᆯ지ᄂᆡ져** 슯흐도다 우리가 호탕ᄒᆞᆫ 텬디자과 광명ᄒᆞᆫ 일월하에 동셔양 황빅인죵이 십오억이나 되ᄂᆞᆫ즁에 우리 이쳔만 동포여 **ᄂᆞᆷ의나라에 노례가 되엿스니 엇지 통국ᄒᆞ지아니리오 만일 노례를 면ᄒᆞ고져ᄒᆞ면** 위션 새지식과 새문견을 힘써야ᄒᆞᆯ지니…"(「긔셔-해조신문 취지셔 쇽」, 『대한매일신보』, 1908.3.12.)

에도 장지연의 주필시기 자강사상(단체론)[15] · 자강교육[16]을 강조하는 다수의 '논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08년 4월 4일자 「논설」에서는 'ᄌᆞ강ᄉᆡᆼ'이라는 필명 아래 '한중일의 동양평화를 위해 외람된 정책과 전일 과실을 회개하라'는 일본 당국자들을 향한 비판이 게재된 바 있다.

'ᄌᆞ강ᄉᆡᆼ'이란 필명은 1908년 4월 2일자 'ᄉᆡᆨᄃᆞᆰ이오'라는 제목의 짧은 단평 기사와 1908년 4월 3일에서 10일까지 총6회에 걸쳐 발표된 「시평(時評)」 기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기사에서도 '나라 망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원통한 일'이라며 친일인사들을 향한 비판[17]과 당시 일본의 보호조치라는 명목아래 자행한 조선에 대한 압제와 학대를 비판하는 내용[18]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다소 검열이 될 만한 기사들에 'ᄌᆞ강ᄉᆡᆼ'이라는 필명을 밝힘으로써 집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ᄌᆞ강ᄉᆡᆼ'은 당시 해조신문사의 주필이자 대한자강회 발기(1906.3.31.) 멤버였던 장지연의 필명으로 추정된다.[19] 장지연에게서 이 같은 일제와 친일인사들에 대한 비판기사가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었다면, '간행취지서'에서 밝힌 "우리나라 츙신렬ᄉᆞ의 ᄉᆞ적과 셔양 력ᄉᆞ에 유명ᄒᆞᆫ 사ᄅᆞᆷ의 힝ᄒᆞᆫ일을 모다 긔록"하는 것은 '국민정신의 배양'과 관련된 작업이었다. 이는 『해조신문』의 대표적 연재물로서 '민족교육(국사 · 지리 · 국문 등)'의 성격을 가진 「본국력사」

14) 구자혁, 「장지연의 자강사상」, 천관우 외,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86~102쪽 참조.

15) 1908.3.4; 1908.3.5; 1908.3.6; 1908.3.7; 1908.3.8; 1908.3.14; 1908.3.18; 1908.3.19; 1908.3.20; 1908.3.24; 1908.4.25; 1908.4.30. 등.

16) 1908.4.9; 1908.4.10; 1908.4.11; 1908.5.2. 등.

17) "세상에 뎨일 원통ᄒᆞᆫ 일 부모 죽은 것보다 더 원통ᄒᆞ고 ᄌᆞ식 죽은 것보다 더 원통ᄒᆞᆫ 일 나라이 멍ᄒᆞᄂᆞᆫ 일 나라이 멍ᄒᆞ면 나와 부모와 ᄌᆞ식이 다 멸멍ᄒᆞᆯ ᄲᅮᆫ만 아니라 쳔츄만ᄃᆡ에 츄악ᄒᆞᆫ 멍국죵 일홈을 쓰ᄂᆞᆫ ᄉᆡᆨᄃᆞᆰ이오. 셰상에 뎨일 미웃놈 일본놈보다 더 미웃놈 ᄂᆡ 동포의 일을 외국놈에게 정탐ᄒᆞ여 주ᄂᆞᆫ 놈 ᄇᆡ곱흐다고 제 살을 베여먹ᄂᆞᆫ 것 ᄀᆞᆺ치 동포를 죽여 제 살을 채우랴다가 ᄂᆡ죵 뎌ᄉᆡ지 죽ᄂᆞᆫ 것을 모르ᄂᆞᆫ ᄉᆡᆨᄃᆞᆰ이오"(자강생, 「ᄉᆡᆨᄃᆞᆰ이오」, 『해조신문』, 1908.4.2.)

18) "▲갑왈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ᄒᆞᆫ다더라 보호ᄂᆞᆫ 고샤ᄒᆞ고 압제와 학ᄃᆡᄒᆞ다ᄂᆞᆫ 것인가 ᄒᆞ겟데 ▲을왈 아모나라이라도 하등인물은 다 잇스니 압제라 학ᄃᆡ라 ᄒᆞᄂᆞᆫ 것은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일본 하등인류의 ᄒᆞᄂᆞᆫ 것을 보고 그럼ᄒᆞ지"(자강생, 「시평」, 『해조신문』, 1908.4.9.)

19) 추후 1907년 11월 10일에 설립된 대한협회(大韓協會)의 발기인(전체10인) 구성을 보면 천도교계 인사(吳世昌, 權東鎭)를 제외한 대한자강회 임원 8인(張志淵, 南宮檍, 柳根, 呂炳鉉, 尹孝定, 李宇榮, 鄭雲復, 洪弼周) 가운데, 장지연이 속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김항구, 「대한협회(1907~1910)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65~66쪽 참조).

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국력사」는 1908년 3월 5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단군시대부터 기자, 삼한, 삼국초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연원과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필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작품 분석과 함께 저자 규명의 문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해조신문사의 편집원[20] 이종운(李鍾雲)을 언급할 수 있다. 이종운은 「본국력사」 이후 「동국명장 김유신」을 총7회(1908.4.5.~4.15)에 걸쳐 연재한 인물이다. 『해조신문』 당시에는 '리종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는데, 「동국명장 김유신」의 첫 호에도 '리종원'이라는 필명을 명시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경남진주 출신의 언론가로 곽종석(郭鍾錫)으로부터 수년간 한학공부를 하였고 입사이전에는 대한매일신보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영어에도 조예가 깊어 『해조신문』에는 영어 번역 담당으로 고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1]

이종운은 「동국명장 김유신」 외에도 「소설 황거복」, 「우슴거리」, 「명담일세」, 「무사가」, 「쇼笑화話」 등 역사 내지 창작 소설, 시평 등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을 연재하고 있어 「본국력사」 또한 집필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가 집필한 모든 작품에는 실명내지는 '호유생', '호로외생' 등의 필명을 명시하고 있어, 「본국력사」를 집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앞서 취지서의 내용에 따른다면, 「본국력사」와 「동국명장 김유신」의 연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충신열사의 사적에 대한 후속 작품이 이어져야만 할 테지만, 이후 장지연의 퇴사와 맞물리며 이종운의 작품을 비롯한 국사, 지리 등에 대한 작품들이 더 이상 게재되지 못하였다.[22] 이는 정순만으로 주필이 교체되면서 변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정순만과의 갈등으로 인한 장지연의 퇴사는 이후 『해조신문』의 기사성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23]

---

20) 이종운은 1908년 4월 2일자 기사(「江東父老제諸公에게 警告홈」, 『해조신문』, 1908.4.2. 3면.) 등에서 스스로를 본사 편집원으로 밝히고 있다.

21) 박환, 앞의 책, 1995, 39쪽.

22) 「동국명장 김유신」과 이종원의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본국력사」는 장지연의 입사와 동시에 연재가 시작된 작품으로 해당기간 「논설」과 함께 매회 신문 1면에 발표[24]될 만큼 신문사에서 큰 비중을 두었던 작품이었다. 공교롭게도 「본국력사」의 연재가 종료된 4월은 장지연과 정순만의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으로, 이후 약 보름 간격으로 장지연의 퇴사(1908.5.11.)와 『해조신문』의 폐간(1908.5.26.)이 진행되었다.

『해조신문』에 연재된 「본국력사」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1] 「본국력사」(『해조신문』) 목록

	제 목	날 짜	소 제 목
1	단군죠션(檀君朝鮮)	1908.3.5.	-
2	단군죠션(檀君朝鮮)	1908.3.6.	-
3	긔ᄌᆞ죠션(긔子朝鮮)	1908.3.7.	-
4	긔ᄌᆞ죠션(긔子朝鮮)	1908.3.8.	-
5	긔ᄌᆞ죠션(긔子朝鮮)	1908.3.10.	-
6	긔ᄌᆞ죠션(긔子朝鮮)	1908.3.12.	-
7	긔ᄌᆞ죠션(긔子朝鮮)	1908.3.14.	-
8	긔ᄌᆞ죠션(긔子朝鮮)	1908.3.15.	-
9	삼한긔(三韓紀)	1908.3.18.	-
10	삼한긔(三韓紀)	1908.3.20.	-
11	삼국(三國)	1908.3.21.	-
12	삼국(三國)	1908.3.22.	-
13	신라긔(新羅記)	1908.3.28.	진휼법(賑恤法), 농긔졔조(農器製造) 빙고셜시(氷庫設施) 륙부륙셩(六部六姓) 가빈일(嘉俳日)
14	신라긔	1908.3.29.	빅졔와 실화(百濟와 失和)
15	신라긔(新羅記)	1908.4.1.	계림(鷄林)

23) 「海港日記」에는 장지연과 정순만 사이의 불화와 이로 인한 퇴사의 배경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박환, 앞의 책, 1995, 36~45쪽 참조).

24) 장지연의 재임기간 「본국력사」가 연재되지 않은 날은 다음과 같다. 1908.3.13; 1908.3.17; 1908.3.19; 1908.3.24; 1908.3.25; 1908.3.26; 1908.3.27; 1908.3.31.(총8회)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본국력사」는 매회 연재마다 시대적 구분을 반영한 제목을 편명과 함께 명시하였다. 「본국력사」는 연재 초기 두 회(1~2회)에 걸쳐 단군조선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기자의 동래와 정치(3~5회) 및 기자조선이 연나라와 대치했던 정황(6회), 기준이 남하하여 마한왕에 즉위한 과정(7회), 위만조선(8회) 및 마한(9회)과 진한·변한(10회)의 사적, 삼국의 건립과 박혁거세의 등장(11회), 남해왕·석탈해·유리왕의 사적(12회), 유리왕 시기 진휼법·빙고설시·육부육성·가배일의 기원(13회), 백제와의 전쟁(14회), 계림·김해김씨의 기원(15회) 등 대략적인 조선 상고사의 내용을 연재하였다. 그 가운데 14회와 15회는 석탈해왕 시기를 서술한 것으로, 백제 다루왕과의 빈번했던 전쟁과 김알지의 탄생 및 계림의 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5회 이후 「본국력사」는 더 이상 연재되지 않았지만, 11회의 '삼한 이후 사적'에 대한 물음[25] 가운데 신라만이 소개되고 나머지 고구려와 백제건국에 대한 서술을 찾을 수 없는 점을 통해 애당초 「본국력사」의 연재는 15회 이후로도 지속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회부터 15회까지는 편명과 제목 외에도 '제도', '풍습' 등과 관련한 별도의 소제목(진휼법(賑恤法), 농기제조(農器製造), 빙고설시(氷庫設施), 육부육성(六部六姓), 가배일(嘉俳日), 백제와 실화(百濟와 失和), 계림(鷄林))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 같은 소제목의 기술은 「본국력사」의 내용이 시대별 제도와 풍속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드러낸다.

다음은 13회 가운데 '가배일'에 대한 서술(①)과, 장지연의 『여자독본』에 실린 '회소곡' 관련 문장을 비교한 표이다.

[표2] 가배일 서술비교 (①:본국력사/②:여자독본)

① 유리왕이 륙부를 ᄂᆞ하 량편을 갈으고 왕의 ᄯᅳᆯ 두 사ᄅᆞᆷ으로 량편에 녀ᄌᆞ(女子)를 거ᄂᆞ리고 츄七월 긔ᄆᆡᆼ붓터 ᄆᆡ일에 궁졍에 모혀 삼을 질삼ᄒᆞ야 밤즁에 파ᄒᆞ고 八월十五일에ᄂᆞᆫ 그 근만을 샹고ᄒᆞ야 진 편에셔 쥬식을 갓초와 익인 편을 치샤ᄒᆞ며 가무와 풍류로 크게 유희ᄒᆞ며 그날은 가ᄇᆡ일이라 닑커ᄅᆞᆫ 고로 지금도 八월 츄석은 가옷날이라 ᄒᆞᄂᆞᆫ 쥴쳐가 이에셔 처음 난 일이요 또 그때 엇던 가난ᄒᆞᆫ 집 녀ᄌᆞ가 지고 춤츄며 탄식ᄒᆞ기를 회소회소라 노ᄅᆡᄒᆞᄆᆡ 그 소ᄅᆡ가 슯흔지라 후인이 그

25) "問 삼한 이후의 사적은 엇더ᄒᆞᆫ고"(「본국력사」, 『해조신문』, 1908.3.21.)

소릭를 인ᄒᆞ여 노릭를 지으니 일홈은 회소곡(會소曲)이라 ᄒᆞ더라 (「본국력사: 신라긔」, 『해조신문』, 1908.3.28.)
② 동국악부(東國樂府)에 회소곡이라ᄒᆞᄂᆞᆫ 곡됴가 잇스니 신라 유리왕(儒理王) 시ᄃᆡ에 신라 셔울에 륙부(六部)를 ᄂᆞᆫ호아 량편(兩便)을 뎡ᄒᆞ고 왕의 두 ᄯᅳᆯ노써 량편의 부ᄂᆡ(部內) 녀ᄌᆞ를 거ᄂᆞ리고 츄칠월(秋七月) 긔망(旣望)으로브터 ᄆᆡ일 아춤에 대부(大部) ᄯᅳᆯ에 모화 삼을 길삼ᄒᆞ다가 밤이 깁흔 후에 파ᄒᆞ고 팔월 십오일에 니르면 그 공의 다쇼(多少) 샹고ᄒᆞ야 진편에서 쥬식(酒食)을 내여 이긴 편을 먹이고 서로 가무(歌舞)도ᄒᆞ며 ᄇᆡᆨ가지 희롱을 베프러 즐기며 노ᄂᆞᆫ거슬 닐ᄋᆞᄃᆡ 가ᄇᆡ일(嘉俳日)이라ᄒᆞᄂᆞ니 이 ᄯᅢ에 진편에서 한 녀ᄌᆞ가 니러나 춤추며 노래ᄒᆞ야 왈 회소회소라 ᄒᆞ니 그 소릭 슬프고 아담ᄒᆞᆷ으로 후인(後人)이 그 소릭를 지여 풍악에 올니고 일홈을 회소곡이라ᄒᆞ니라 (「제5장 잡편: 제61과 회소곡」, 『여자독본』상, 1908.)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국력사」 13회의 '가배일'에 대한 서술(①)은 장지연이 같은 해(1908년) 간행한 『여자독본』 상권의 「제5장 잡편: 제61과 회소곡」(②)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실려 있다. 다만, 『본국력사』(①)는 '가배일'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여자독본』(②)은 애당초 '회소곡'을 설명하기 위해 정리된 글이므로, 도입부의 출처에 대한 서술 등에서 상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출처로서 명시한 『동국악부』는 『佔畢齋集』(卷之三)의 「동도악부(東都樂府)」로 추정된다.[26] 「동도악부」는 조선시대 영사악부(詠史樂府)로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며, 이후 沈光世(『海東樂府』)를 비롯하여 李瀷의 〈海東樂府〉, 李宜顯(『東都樂府』), 吳光運(『海東樂府』), 李匡師(『東國樂府』, 李裕元〈海東樂府〉 등이 점필재의 찬술을 모범으로 삼았다.[27] 이들 작품군은 공통적으로 '해동', '동도', '동국' 등 옛 조선 땅을 지칭하던 표기를 쓰고 있는데, 장지연이 언급한 「동국악부」 또한 동일한 의미였던 「동도악부」를 지칭하며, 실제 이에 해당하는 원문이 실려있다.[28]

이처럼 동시기 장지연의 저술에 같은 주제와 동일한 내용의 서술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장지연이 「본국력사」의 편자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

26) 현재 전하는 『東國樂府』는 李匡師가 지은 〈海東樂府〉 30수에 그의 아들 李令翊이 화답한 시를 모은 것인데, 해당 『동국악부』에는 〈회소곡〉이 실려 있지 않다.

27) 김영숙, 「조선후기 악부의 유형적 성격」, 『어문학』 44 · 45, 한국어문학회, 1984, 49~51쪽; 유영봉, 「점필재 「동도악부」의 성격과 계승양상」, 『동방한문학』 29, 동방한문학회, 2005, 23~26쪽 참조.

28) "儒理王九年 定六部號 中分爲二 使王女二人 各率部內女子分朋 自七月望 每日 早集大部之庭績麻 乙夜而罷 至八月望 考其功之多少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 歌舞百戲皆作 謂之嘉俳 是時 負家一女子起舞 嘆曰 會蘇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作歌 名會蘇曲"(「東都樂府」, 『佔畢齋集』 卷之三)

장지연이 과거 주필로 있었던 『시사총보』와 『황성신문』, 『대한자강회월보』 등에서 「논설」과 '고사(故事)' 연재를 주도했듯이, 『해조신문』에서도 「논설」의 집필과 함께 「본국력사」의 연재를 병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조신문사 구성원[29] 내에서 장지연을 제외하고는 상고사 연재기사에 대한 집필자를 상정하기 어려운데, 특히 장지연은 이미 『대한강역고』(1903)[30]를 비롯하여 「국조고사」(『대한자강회월보』, 1906.7~1907.1)[31]와 『대한신지지』(徽文舘, 1907)를 통해 상고사를 저술하였으며,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元泳義・柳根, 1906)[32]의 서문 집필과 교열(校閱)까지 담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의 상고사 연구는 을사늑약 이전인 『대한강역고』와 이후 집필된 「국조고사」・『대한신지지』에서 일정부분 변화가 보이는데, 그 일련의 흐름이 「본국력사」로 이어지는 것도 장지연의 집필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이다.

장지연은 『대한강역고』를 시작으로 「국조고사」와 『대한신지지』, 「본국력사」로 이어지는 자국의 역사와 강역에 대한 집필 작업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주지하듯, 장지연은 『대한강역고』에서 단군조선의 실재성을 불신하고 마한의 정통성여부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조고사」와 『대한신지지』를 집필하면서, 고조선의 강역은 서북으로 만주지방을 포함하고 동쪽으로 강원도에 이르며, 기준이 위만에 쫓겨 남천하여 마한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기준의 후손이 마한왕을 세습했음을 인정하는 등 마한을 기자조선의 후속국가로서 취급하고 있다.[33] 이 같은 그의 인식은 「본국력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시대별 풍속과 현재의 지

29) 해조신문사의 구성원은 박환의 앞의 책(1995, 36쪽) 〈표1: 해조신문사의 구성원일람표〉를 참조할 것.
30) 『대한강역고』는 장지연이 1903년에 정약용(丁若鏞)의 『我邦疆域考』를 증보한 책으로 황성신문사에서 1905년에 발간되었다. 『대한강역고』의 내용은 대부분 『我邦疆域考』와 동일하여 한국 상고시대의 주요 지명의 위치와 우리 민족과 이민족과의 국경을 역사적으로 고증한 것이다(이훈옥, 「장지연의 역사인식」, 천관우 외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256쪽 참조).
31) 『대한자강회월보』에는 1906년 7월부터 1907년 1월까지 숭양산인(嵩陽山人)으로 필자를 밝힌 「國朝故事」와 「故事荒誕詭說辨」, 「國朝故事荒詭辨」 등의 글이 총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32) 『신정동국역사』는 1906년 유근과 원영의가 단군에서 고려시대까지를 편년체로서술한 중등용(휘문의숙) 교과서이다(김명섭, 「석농 유근의 생애와 민족운동」,『석농유근 자료총서』, 한국학술정보, 2007, 22쪽 참조).
33) 이훈옥, 앞의 책, 1993, 276~285쪽 참조.

명, 성씨의 기원 등을 아울러 설명하며 실재성을 보다 강조하는 면모를 보인다. 장지연에게 있어 「본국력사」와 「국조고사」의 연재는 당대 사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하지 못했던[34] 한국사 연구에 대한 비판이자 기존 소략하고 의혹이 많았던 역사기술[35]을 바로잡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상고사를 비롯한 한국사 연구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육군참모본부와 제국대학 사학과, 국사학과(일본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었다.[36] 이를 통해 왜곡된 역사관에 불만을 품은 장지연은 한국고대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기존의 황탄괴이한 고사들을 취합하여 40여종[37]이 넘는 방대한 참고문헌을 통해 「국조고사」의 이야기들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한 것이다. 장지연의 이 같은 방대한 실증작업의 토대는 「국조고사」를 연재하기 전 발간한 『대한강역고』의 저술이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38] 이듬해인 1907년에 발해된 『대한신지지』도 『여지승람(輿地勝覽)』, 『조선고(朝鮮考)』, 『고려악부(高麗樂府)』, 『수경(水經)』, 『동사강목(東史綱目)』, 『잡설(雜說)』, 『관자서(管子書)』, 『문헌비고(文獻備考)』,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고려사(高麗史)』, 『당서(唐書)』, 『동사고기(東史古記)』, 『위략(魏略)』, 『명일통지

34) "又按**德陽奇氏族譜**에 自太祖文聖王箕子로 (중략) 其言이 不出正史오 且箕子之際에 諡号尙未行이어늘 其曰太祖門聖王者ㅣ恐未可信也니 疑者ᄂᆞᆫ 遂闕之可矣니라."(「國朝故事」 5호, 『대한자강회월보』, 1906.11.25.)

35) "惟 高麗時에 金富軾의 三國史가 最히 近古ᄒᆞ나 또ᄒᆞᆫ 踈略을 未免ᄒᆞ고 東史古記라. 三國遺事라ᄒᆞᄂᆞᆫ 類ᄂᆞᆫ 皆 釋子緇徒의 手로 從出ᄒᆞᆷ으로 荒誕詭異의 說이 甚多ᄒᆞ야 反히 後人의 疑點을 起케ᄒᆞ니 엇지 慨惜치 안이ᄒᆞ리오."(「國朝故事」 1호, 『대한자강회월보』, 1906.7.31.)

36) 주요연구자들은 간마사토모(管政友)・요시다도고(吉田東伍)・하야시(林泰輔)・시라토리(白鳥庫吉) 등이었는데, 하야시의 『朝鮮史』는 이후 현채의 『東國史略』의 저본으로 활용되었을 만큼 해당시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전무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훈옥의 앞의 책(1993, 253~255쪽)을 참조할 것.

37) 장지연이 「국조고사」(『대한자강회월보』, 1906.7~1907.1)의 저술시 참고했던 40여종의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疆域考, 古今記, 高麗史, 孔安國書序, 廣輿記, 南史, 唐書, 德陽奇氏族譜, 東國摠目, 東國通鑑, 東方朔神異記, 東史綱目, 東史古記, 孟子, 文獻通考, 方言, 范史, 史記, 山海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書傳, 盛京志, 星湖僿說, 宋史, 刷還咨文, 隋書, 魚豢魏略, 輿地勝覺, 魏書, 一統志, 資治通鑑, 戰國策, 左氏傳, 周易, 芝峰類說, 震朝通記, 崔氏史論, 通考, 漢書, 洪氏摠目, 後漢書 등.

38) 앞서 「국조고사」의 참고문헌 가운데, 高麗史, 唐書, 德陽奇氏族譜, 東國摠目, 東史綱目, 孟子, 文獻通考, 史記, 山海經, 三國史記, 盛京志, 星湖僿說, 宋史, 隋書, 魚豢魏略, 輿地勝覺, 魏書, 一統志, 資治通鑑, 通考, 漢書, 後漢書 등은 『대한강역고』을 저술했을 때 참고했던 문헌들이기도 하다. 『대한강역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목록은 김생기, 「장지연의 역사인식」, 천관우 외 『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387쪽 〈표 3〉을 참조할 것.

(明一統志)』, 『진서(晉書)』, 『후한서(後漢書)』, 각도별 군지(郡誌) 등 수많은 문헌을 참조하여 저술했음을 서문과 본문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비록, 「본국력사」는 앞서 『대한강역고』·「국조고사」·『대한신지지』에서처럼 참고문헌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진행했던 일련의 상고사 연구와 이를 잡지에 연재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각 시대별 풍속(정치·제도 등)에 대한 서술 및 문답식 표기, 지명표기 등의 독특한 서술방식을 통해 장지연의 실증적 역사관과 저술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3. 상고사 풍속서술과 문답식 표기

장지연은 『대한강역고』를 편찬한 경험을 토대로 주요 논의들을 보다 심화하기 위해 「국조고사」·『대한신지지』의 집필을 시도한 것이라면, 「본국력사」는 대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상고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별 풍속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기획연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문독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고대사에 대한 지식을 넓혀 국민정신의 배양과 국권회복을 주장하고자했던 『해조신문』의 발간취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장지연은 기존에 정리했던 상고사를 보다 쉽고 간략히 전달하고자 시대별 풍속에 대한 서술에 비중을 두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들은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상고사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본국력사」와 「국조고사」, 『대한신지지』에서 상고시대 풍속에 대해 정리한 부분을 비교한 표이다.

[표3] 상고사 풍속서술 비교 (①:본국력사/②:국조고사/③:대한신지지)

1-①	단군이 비로소 나심이 빅셩을 가라쳐 두발을 역고 머리를 덥게 ᄒᆞ며 임금과 신하와 남녀와 음식과 거쳐ᄒᆞᄂᆞᆫ 제도를 뎡ᄒᆞ니라. (1908.3.6.)
1-②	洪萬宗東國摠目에 云檀君의 名은 王儉이니 都平壤이라가 後都白岳이라 ᄒᆞ고 又 云民을 敎

	ᄒᆞ야 編髮蓋首라ᄒᆞ며 (중략) 編髮蓋首란 說은 何書에 出ᄒᆞᆷ인지 不知ᄒᆞ되 開國의 初에 敎民의 節이 必有ᄒᆞᆯ지니 此ᄂᆞᆫ 無惟ᄒᆞ되 (1906.8.25.)
1-③	我國婦人의 頭髮은 兩道로 首에 繞ᄒᆞ고 其尾를 卷屈ᄒᆞ야 右에 插ᄒᆞ고 其纓으로써 垂ᄒᆞᆷ이 卽亦 箕子卷髮蠆旗의 遺制니 (중략) 童子ᄂᆞᆫ 髮을 編ᄒᆞ야 背에 垂ᄒᆞᆷ이 卽檀君의 遺制니 加冠後ᄂᆞᆫ 草笠或笠子를 戴ᄒᆞ고 服色은 無常ᄒᆞ니라 (「第二編 人文地理-第六章 衣服及飮食」, 58-59面.)
2-①	쥬(周)나라 무왕(武王)이 듀왕을 치고 텬하를 엇으ᄆᆡ 긔ᄌᆞ를 방석ᄒᆞ고 셩인의 도를 무르니 긔ᄌᆞ가 홍범구쥬(洪範九疇)라ᄒᆞᄂᆞᆫ 글을 젼ᄒᆞ신후에 남녀 五千人을 거나리시고 죠션에 나오시니 시셔와 례악과 의약과 복셔와 ᄇᆡᆨ공기예에 한숙ᄒᆞᆫ쟈- 다 좃차오니 (1908.3.8.)
2-②	及宗社가 淪喪ᄒᆞᆷ이 周武王에게 洪範九疇를 傳ᄒᆞ고 罔僕之志를 遂ᄒᆞ야 朝鮮으로 東走ᄒᆞ니 是ᄂᆞᆫ 天이 我邦을 開明코져 ᄒᆞᆷ이라. (1906.8.25.)
2-③	我國의 宗敎ᄂᆞᆫ 古初로븟허 箕子의 敎化로 支那文明의 洪範大道를 崇信ᄒᆞ더니"(「第二編 人文地理-第七章 宗敎」, 61面, 1907.)
3-①	긔ᄌᆞ가 ᄇᆡᆨ셩을 가라치시되 례의로써 ᄒᆞ야 팔됴(八條)의 교를 베프시고 졍젼을 뎡ᄒᆞ시니라 (중략) 여ᄃᆞᆲ 가지 됴목으로써 ᄇᆡᆨ셩을 가라치심이니 부ᄌᆞ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와 부부유별(夫婦有別)과 쟝유유서(長有幼序)와 붕우유신(朋友有信)과 사ᄅᆞᆷ을 죽인쟈ᄂᆞᆫ 명으로써 갑게 ᄒᆞᆷ과 서로 샹ᄒᆞᆫ 쟈ᄂᆞᆫ 곡식으로써 갑게 ᄒᆞᆷ과 서로 도젹ᄒᆞᆫ 쟈ᄂᆞᆫ 남ᄌᆞ와 녀ᄌᆞ가 그 집에 출입ᄒᆞ야 종이 되게 ᄒᆞᆷ이라. 그런고로 ᄇᆡᆨ셩이 서로 도젹ᄒᆞ지 안이ᄒᆞ고 부인이 음란치 안이ᄒᆞ며 밧과 들이 열니고 음식을 ᄃᆡ그릇과 나무그릇으로써 ᄒᆞ니 긔ᄌᆞ의 덕화가 젼국에 보급ᄒᆞ얏더니라. (1908.3.10.)
3-②	箕子井田은 平壤 外城에 在ᄒᆞ야 區畫이 宛然ᄒᆞ니 韓久菴百謙이 平安道 觀察使로 在ᄒᆞᆯ 時에 其 區畝를 測量ᄒᆞ야 圖本을 成ᄒᆞ얏ᄂᆞᆫᄃᆡ 其 形이 皆 田字로 成ᄒᆞ고 井田과 有異ᄒᆞᆫ지라 (1906.9.25.)
3-③	我國의 風俗은 箕聖이 支那의 文明을 輸入ᄒᆞ심으로 (중략) 士ᄂᆞᆫ 禮節을 尙ᄒᆞ고 忠孝를 本ᄒᆞ야 君親을 敬愛ᄒᆞ고 長幼의 分과 男女의 別이 嚴ᄒᆞ며 倫理의 發達이 世界에 無比ᄒᆞ니라 (「第二編 人文地理-第四章 風俗及性質」, 49面, 1907.)

첫 번째 인용문(1-①/1-②/1-③)은 단군시대 풍속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다, 「본국력사」(1-①)에서 '두발을 엮고 머리를 덮게 하며'로 머리장식 제도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앞서 「국조고사」(1-②)에서는 '편발개수(編髮盖首)'의 용어 간단히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그 출처는 분명하지 못하지만, 해당 풍속은 명확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후 『대한신지지』(1-③)에 이르러서는 단군과 기자의 제도를 구분하여 각기 동자들의 머리를 엮어 등에 드리운 풍속과, 부인들의 권발채여(卷髮蠆旗) 풍속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국력사」(1-①)에서 다시 단군의 제도로 요약한 것과 신분·음식·주거 제도에 대한 부연설명 등은 단군시대의 풍속을 강조하기 위한 서

술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2-①/2-②/2-③)은 기자가 주무왕(周武王)에게 '홍범구주(洪範九疇)'를 전한 뒤, 조선에 동래(東來)하여 백성을 교화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다. 해당 내용은 「국조고사」(2-②)와 『대한신지지』(2-③)에서 동일한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다만 「본국력사」(2-①)에서는 백성교화(개명)에 대해 시서, 예약, 의약, 복서, 백공기예 등의 구체적인 조목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 인용문(3-①/3-②/3-③)은 기자시대의 정치인 '팔조(八條)'와 '정전(井田)'을 서술한 대목이다. 각기 「국조고사」(3-②)에서 기자의 교육과 정전제도를, 『대한신지지』(3-③)에서도 기자의 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팔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본국력사」(3-①)에 이르러 '팔조의 교'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함께 여덟 조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신문 속 단군・기자시대 풍속에 대한 연재는 당대 지식인으로서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자각과 국민정신 배양을 통한 국난극복을 모색하는 기획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조신문』의 「논설」에서도 '현재 대한제국이 처한 위기는 누백년 고질의 풍습을 개량하지 못한 것에 있음'[39]을 주장하며 '민족의 개명(開明)을 위한 풍속 개량의 중요성'[40]을 피력하기도 하였고, 풍속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명화된 나라를 설계했던 상고시대를 조망하면서 '애국정신을 격발하고 본국의 국체를 높일 것'[41]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 『황성신문』에서 세계 문명국에 대한 풍속을 연재한 사실[42]을 통해서도 당시 지식인들이 자국의 풍속교화에 대한 문제에 얼마나 큰 관

39) "금일에 이르러서는 지어 본국 내지에 있는 동포라도 마땅히 누백 년 고질의 풍습을 버리고 너나없이 한결같이 이 속박을 면할 도리만 강구할지라."(「논설-桑港居留同胞에게 警告함」, 『해조신문』, 1908.4.25.)

40) "대저 개명(開明)정도의 진보되는 것을 살피고자 할진데 반드시 먼저 인민의 단체력이 어떠한지 또한 그 풍속의 개량됨이 어떠한지 이 두 가지로써 가히 징험할지라"(「논설-開明程度의 進步」, 『해조신문』, 1908.5.2.)

41) "본국의 역사, 지지라 하는 것은 사람마다 애국정신을 격발케 하는 기계라. 역사상에 기재한 사실은 다 본국의 국체를 높이고 국민의 특별성질을 발달케 하며"(「논설-學校의 精神은 敎科書에 在홈」, 『해조신문』, 1908.5.14.)

42) 반재유, 「근대신문 소재 해외 풍속기사연구」,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21 참조.

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본국력사」의 상고사에 대한 정리는 이를 서술한 표기방식에서부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음은 「본국력사」와 「국조고사」, 『대한신지지』에서 '기준/위만 사적'에 대해 서술한 대목을 비교한 표이다.

[표4] '기준/위만 사적' 서술 비교 (①:본국력사/②:국조고사/③:대한신지지)

① 問 긔쥰의 ᄉᆞ적은 엇더ᄒᆞᆫ고. 答 (…) 위만이 군ᄉᆞ 수쳔명을 거ᄂᆞ리고 들어와 긔쥰을 응습ᄒᆞ야 파ᄒᆞ니 (…) 答 긔ᄌᆞ죠션의 력년은 九百二十九年이오. 問 긔쥰은 어ᄃᆡ로 가셔 결과가 엇더ᄒᆞ오. 答 긔쥰은 바다에 ᄯᅥ셔 남방으로 도ᄆᆞᆼᄒᆞ다가 금마군(金馬郡)이란 ᄯᅳ에 일으러 마한국(馬韓國)을 쳐파ᄒᆞ고 마한왕이 되얏스니 지금 젼라도 익산(益山)군에 긔쥰셩이 잇고 마한 무강왕릉이 잇지오. (…) 問 위만죠션의 사적을 듯고져 ᄒᆞ노이다. 答 위만이 긔쥰을 암습ᄒᆞ야 파ᄒᆞ고 스ᄉᆞ로 왕이 됨ᄋᆡ 왕금셩 (지금 평양)애 도읍ᄒᆞ고 국호를 역시 죠션이라 칭ᄒᆞ얏ᄂᆞᆫᄃᆡ (「본국력사」, 『해조신문』 1908.3.14.-15.)
② 范史에 (…) 朝鮮王準이 爲衛滿所破ᄒᆞ야 走入海ᄒᆞ야 攻馬韓破之 ᄒᆞ고 自立爲韓王이라가 (…) 高麗史地志에 金馬郡에 有後朝鮮武康王妃陵ᄒᆞ니 俗号永通大王陵이라 ᄒᆞ고 一云百濟武王의 小名은 薯童이 與地勝覽에 益山古号ᄂᆞᆫ 金馬오 /[43] 三國史에曰 平壤은 仙人王儉의 宅이라 ᄒᆞᆯ 섄이오 檀君의 姓名이라 ᄒᆞᆷ은 永有ᄒᆞ나 此ᄂᆞᆫ 魏書와 古記遺事가 竝同ᄒᆞ니 姑存이 無妨ᄒᆞ나 史記에 衛滿이 都王儉이라 ᄒᆞ니 (「國朝故事」, 『大韓自强會月報』 5호/2호)
③ 歷九百二十年ᄒᆞ야 四十一世孫準이 燕人衛滿의 襲奪ᄒᆞᆫ바ㅣ 되고 南으로 金馬郡 今益山에 至ᄒᆞ야 馬韓에 王ᄒᆞ니라 (…) 衛滿은 距今二千一百年前에 箕準을 襲破ᄒᆞ고 王儉城 今平壤에 仍都ᄒᆞ더니 (「第二編 地文地理-第五章 沿革」, 『大韓新地誌』 5面, 1907)

위 예문들은 기준과 위만의 사적을 서술한 대목이다. 기준이 위만과의 세력다툼으로 인하여 남하한 뒤 마한왕이 되고, 위만은 왕검성에 도읍하여 국호를 역시 조선이라 칭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세 문헌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기준/위만 사적'에 대한 동일한 견해(마한 정통성 등)는 「본국력사」가 「국조고사」·『대한신지지』와 결을 같이하는 저작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국조고사」(②)·『대한신지지』(③)에서 밝힌

43) 서술 비교의 편의를 위해 '5호'와 '2호' 문장의 순서를 바꾸었음을 밝힌다.

출전(出典)과 역년(歷年), 내각주(소괄호) 형태의 지명표기[44]와 함께 「본국력사」(①)에서도 시대별 역년과 현 명칭이 병기된 지명표기[45]를 상술하고 있어, 장지연의 실증성에 입각한 서술태도[46]와 함께 그의 상고사 연구에 대한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단, 「본국력사」의 경우 인용문(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칫 이해가 어려운 역사적 사실들을 문답식을 활용한 구어투의 서술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본국력사」의 문답식 표기는 열다섯 편의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전술한바 시대별 풍속서술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상고사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집필자의 의도와도 결부된다.

해당 문답식 표기는 장지연의 주필시기 『해조신문』이 지향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실례로 앞서 살펴본 「시평」 기사를 언급할 수 있다. "六十村翁이 十三兒學徒로 問答홈"이란 소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촌옹'의 물음에 '학도'가 답변하는 형태로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촌옹'과 '학도'의 문답은 4월 4일자와 4월 5일자 「시평」에서도 확인되며, 4월 9일자와 4월 10일자 「시평」에서는 '갑'과 '을'의 문답 구성을 취하였다. 마치 채록자(기자)가 구술자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옮겨 놓은 듯,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결한 구어투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밖에도 「기서」란 또한 주필과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47]으로서 기능

44) "檀君이 白岳에 (卽九月山今文化) 徙都홈이…箕子가 平壤에 都ᄒᆞ샤 城郭을 築ᄒᆞ고 (今外城在唐浦上)"(장지연, 「국조고사」, 『대한자강회월보』 제2호, 1906.8.25.) / "白岳山阿斯達(今文化九月山)에 移都ᄒᆞ얏다가…曰樂浪(今平安道地)은 治朝鮮顚(今平壤)ᄒᆞ고 曰臨屯(今江原黃海京畿以北之地)은 治東暆縣(或曰今臨津沿江之地)ᄒᆞ고 曰玄菟(今咸鏡南道之地)ᄂᆞᆫ 治沃沮城(今咸興)ᄒᆞ고 曰眞番(今鴨綠江以北婆豬江之地)은 治霅縣(今未詳)이러니"(「第一編 地文地理: 第五章 沿革」, 『대한신지지』, 4면).

45) "ᄒᆞᆫ 셩인이 태빅산(지금 넝변 묘향산) 단목 아릭에 ᄂᆡ려와 신명홈이 잇거ᄂᆞᆯ"(1908.3.5.) / "변한은 진한의 남편(지금 경상도 김히)에 잇서 또ᄒᆞᆫ 十二국을 거ᄂᆞ렷스나"(1908.3.20.) / "진한 시림셩[계림성의 오자로 추정](지금 경상도 경주)에 도읍ᄒᆞ고 왕호ᄂᆞᆫ 거셔간(居西干)이라하며"(1908.3.21.) 등.

46) 이 같은 특징은 인명과 지명, 숫자 등 명확한 전달이 필요한 용어에 한하여 한자 병기를 허용하는 면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7) 김대륭은 앞의 논문(241쪽 참조)에서 신문의 각 지면을 소개하면서 「기서」란에 대해 독자의 주장을 단순히 싣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주필과 대화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을 담당하였다. 다음은 「논설」란과 「기서」란에 실린 기사로, 주필과 독자와의 문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논설」-「기서」간 문답구조

어제ᄂᆞᆯ 신문에 우리 여러 동포에게 권고ᄒᆞ기를 첫재 주의ᄒᆞᆯ것은 아모조록 동심합ᄐᆡᄒᆞ여 셔로 ᄉᆞ랑ᄒᆞ야 단톄를 ᄆᆡ즌후에 우리나라 독립권도 찻고 동포의 다힝ᄒᆞᆫ 복이 된다ᄒᆞᆫ 말은 이 신문을 ᄋᆡ독ᄒᆞ시ᄂᆞᆫ 쳠군ᄌᆞ씌셔 응당 다 보셧슬것이니 엇덧케 ᄉᆡᆼ각ᄒᆞ시ᄂᆞᆫ지ᄂᆞᆫ 모로거니와 불가불 그 말에 ᄃᆡᄒᆞ야 단톄라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대강 설명ᄒᆞᆯ터이니 므릇 단톄라ᄒᆞᄂᆞᆫ 말은 둥글단[團] 몸톄[體] 두글ᄌᆞ이라 그 ᄯᅳᆺ은 여러 몸동이를 합ᄒᆞ야 ᄒᆞᆫ 둥근 덩어리를 문들나ᄒᆞᄂᆞᆫ 말이니 (하략) 「논설-단톄 합ᄒᆞᄂᆞᆫ것이 뎨일 문뎨」, 1908.3.5.~6.
본인이 근ᄂᆡ에 귀샤 신문을 경독ᄒᆞᆯ식 ᄆᆡ양 뎨일면 론셜에 주의ᄒᆞ야 두세번 열람ᄒᆞ거니와 (중략) 사ᄅᆞᆷ마다 단톄가 됴흔줄을 알것마ᄂᆞᆫ 몸소 힝ᄒᆞᄂᆞᆫ쟈- 업스니 엇지ᄒᆞ면 단톄ᄒᆞᆸ ᄒᆞᄂᆞᆫ 방법이 잇슬ᄂᆞᆫ지 청컨ᄃᆡ 긔자션ᄉᆡᆼ은 그 방칙을 말슴ᄒᆞ시와 이 어리셕은 놈의 흉금을 샹쾌ᄒᆞ게ᄒᆞ오 「기서-챠셕보」, 1908.3.22.
본긔쟈의 단톄론에 ᄃᆡ하야 신ᄉᆞ 챠셕보씨가 긔셔ᄒᆞᆫ것을 일작 본신문에 게지ᄒᆞ얏거니와 그 긔셔를 열람ᄒᆞᆫ즉 대지ᄂᆞᆫ 다름아니라 신문에 아무리 권권ᄒᆞ야도 단톄가 되지못ᄒᆞᆯ 리유를 설명ᄒᆞ고 또ᄒᆞᆫ 엇지ᄒᆞ면 단톄될 방칙이 잇ᄂᆞᆫ가 지시ᄒᆞ라 ᄒᆞ얏스니 본긔쟈ᄂᆞᆫ 챠공이 졍즁히 긔셔ᄒᆞᆫ 셩의를 져ᄇᆡ리지 못ᄒᆞ여 두어말노 앙답ᄒᆞ노니 (중략) 청컨ᄃᆡ 챠공은 이일을 조금 ᄉᆡᆼ각ᄒᆞ야 볼지어다. 본긔ᄌᆞ의 론변이 만약 불연ᄒᆞᆫ 리유가 잇거든 다시셜명ᄒᆞᆷ을 청ᄒᆞ노라 「논설-답 챠셕보씨 긔셔」, 1908.3.24.

첫 번째 인용문은 자국의 독자들에게 단체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글로서, 이를 통해 자국의 독립권을 회복하고자하는 의지를 설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글에서는 독자가 단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며, 세 번째 글에서는 독자의 물음에 대하여 주필이 직접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문답체 구조는 과거 『독립신문』을 비롯한 단형서사 작품들에서 빈번히 확인되던 방식이지만[48] 주필과 독자간의 직접적 문답기사가 같은 신문에 번갈아 발표된 상황은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다. 이처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 내 주필과 독자의 문답 내용이 번갈아 실리게 되면서 『해조신문』은 쌍방향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갔다. 이는 '기서'와 보조금액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글[49] 내지는 당부의

48) 김영민 외,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전집-해제』, 소명출판, 2003, 559~560쪽 참조.

49) "작일에 본항 유지하신 신사 김학만, 이상운, 김자천 씨 이하 제군자 二十三 인께서 본 신문 애독하는 성의로 일장 기서를 본사에 붙이고 또한 금액을 의연하여 보조까지 하신 고로 작일 본 신문에 이미 게재하였거니와"(「논설-義助 제군ᄌᆞ씌 감샤ᄒᆞᆫ 의견을 진술ᄒᆞᆷ」, 『해조신문』, 1908.3.21.)

글[50] 및 본사에 찾아온 독자와 문답한 내용[51] 등을 소개한 '논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국력사」의 문답체 방식 또한 이 같은 『해조신문』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마치 독자의 물음에 주필이 답변하듯, 가급적 쉽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조선의 상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문답체 형식은 당시 암신문이라 불렸던 『제국신문』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특히 1907년 5월 17일 지면개편(확장) 이후 게재하기 시작한 「가정학」(『제국신문』, 1907.12.11.~1908.6.19., 142회), 「윤리학」(『제국신문』, 1908.6.20.~10.27, 약100여회) 등의 학문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사에서는 국문체와 더불어 문답체 형식을 통해 부녀자와 서민층까지 독자로 포섭하려 했던 전략을 엿볼 수 있다.[52] 그러나 「본국력사」(『제국신문』, 1907.6.9.~6.26, 15회)를 비롯한 역사학 관련 기사에서는 문답체를 사용하지 않고 종래의 편년체(編年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제국신문』이 독자 이해와 소통 구조를 강화하는데 있어 구상했던 주요 기사 범주에 역사학 관련 기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에 반해 역사학 관련 기사에 문답체 구조를 적용한 『해조신문』의 전략은 이전 『제국신문』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었다.

물론, 해당시기 역사·지지학 계통에서 문답체 서술이 시도된 것은 『문답대한신지지』(박문서관, 190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답대한신지지』의 서문(1908.12.)에서 현채(玄采)는 해당 교재를 질문-응답 형식으로 저술한 이태국(李泰國)의 공을 높게 평가한 면모를 통해, 이 보다

50) "본 신문 발간한 이래로 여러분 신사(紳士)께서 본사를 위하여 기서하는 동포가 많으오니 감사하기 이를 것 없거니와 기중에 혹 기재한 것도 있고 혹 기재치 아니한 것도 있사오니 여러분께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혹 책망하실 듯도 하기에 첨군자의 의혹을 변명하기 위하여 한마디 말씀도 하려니와 또한 장차 기서 하시고자하는 첨군자께 대하여도 한마디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논설-본샤 긔셔 첨군ᄌᆞ에 ᄃᆡᄒᆞ야 권고홈」, 『해조신문』, 1908.3.22.)

51) "어떤 손님 한 분이 본 기자를 대하여 물어 가로대 선생의 신문 논설을 본즉 동포 간에 서로 당파를 찢어 나누는 까닭으로 단체가 되지 못한다 하였으니 그 말이 의심나도다."(「논설-긱의문답」, 『해조신문』, 1908.3.7.~3.8.); "어떤 외국객 한 분이 지나다가 들어와 인사를 마친 후에 연일 본지에 논열한 동양척식회사의 관계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가로대,"(「논설-客問答辨」, 『해조신문』, 1908.4.18.)

52) 김복순,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學知)의 타자성」, 『여성문학연구』 3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20~37쪽 참조.

앞선 시기 『해조신문』에 발표된 「본국력사」의 상고사 서술방식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서술 방식이었으며, 이후 국내 역사·지지학 관련저술[53]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국력사」의 연재 속에 담으려 했던 상고사의 풍속과 이를 전달하기 위한 문답체의 서술방식 등은 당대 일제의 국내 신문 규제에 대항하여 민지의 계발 및 민족의식의 각성을 촉구하려 했던 장지연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획으로서, 그의 상고사 연구의 궤적과 함께 『해조신문』의 성격을 조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본고가 「본국력사」에 주목한 이유라 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해조신문』에 연재되었던 「본국력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성상으로는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 장지연의 주필기간 주목할 만한 해조신문의 기사들과 함께 대표적 연재물인 「본국력사」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본국력사」의 집필자에 대한 추정과 함께 서술방식의 특징 및 의의 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주요 본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려 한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에 실린 『해조신문』의 취지서를 살펴보면, '국민정신의 배양'과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지연의 주필기간, '자강생'이란 필명을 남긴 기사들(「논설」 1908.4.4; 「까닭이오」1908.4.2; 「시평」1908.4.3.~10)에는 일제와 친일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다소 검열이 될 만한 기사들에 '자강생'이라는 필명을 밝힌 것은 주필 개인의 견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제 및 친일인사들을 향한 비판기사가 취지서에 밝힌 '국권회복에

53) 「지문문답」(『기호흥학회월보』 11, 1909, 29~31면), 「지문학문답」(『대한흥학보』 11, 1910, 27~31면) 등.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었다면, '국민정신의 배양'과 관련된 작업은 민족교육의 성격을 지닌 「본국력사」(1908.3.5.~4.1, 총15회)와 「동국명장 김유신」(1908.4.5.~4.15, 총7회)의 연재라 할 수 있다. 「동국명장 김유신」의 경우 매회 제명 하단에 '리종원(이종운)'으로 필자를 밝히고 있는데 반해, 「본국력사」는 구체적인 필명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작품의 연재 배경 및 의미 등을 고찰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국력사」는 단군시대부터, 기자, 삼한, 삼국초기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연원과 풍속,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장지연의 입사와 동시에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연재가 종료된 시점은 해조신문사 내 장지연의 입지가 줄어든 시기와 맥이 닿아 있는데, 장지연의 재임 기간에는 「논설」과 함께 매회 신문 1면에 발표될 만큼 신문사에서 큰 비중을 두었던 연재물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편명과 제목 외에 제도·풍습 등을 강조한 별도의 소제목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가배일'에 대한 서술은 동시기 장지연이 저술한 『여자독본』에서도 동일한 기록('회소곡')으로 실려 있다. 해당 정황들을 근거로 본고에서는 장지연이 과거 주필로 있었던 신문(『시사총보』·『황성신문』), 잡지(『대한자강회월보』) 등에서 「논설」과 '고사' 연재를 주도했듯이 『해조신문』에서도 「논설」 집필과 함께 「본국력사」의 연재를 병행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지연의 상고사 저술은 이미 『대한강역고』를 비롯하여 「국조고사」(『대한자강회월보』)와 『대한신지지』 등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상고사 연구는 을사늑약 이전인 『대한강역고』와 이후 집필된 「국조고사」, 『대한신지지』에서 일정부분 변화가 보이는데, 그 일련의 흐름이 「본국력사」로 이어지는 것도 장지연의 집필을 추정하게 하는 근거이다. 실제 「국조고사」·『대한신지지』에서 밝힌 출전(出典)과 역년(歷年), 내각주(소괄호) 형태의 지명표기와 함께 「본국력사」에서도 시대별 역년과 현 명칭이 병기된 지명표기를 상술하고 있어, 장지연의 실증성에 입각한 역사 서술태도와 함께 그의 상고사 연구에 대한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장지연은 『대한강역고』를 편찬한 경험을 토대로 주요 논의들을 보다 심화

하기 위해 「국조고사」, 『대한신지지』의 집필을 시도한 것이라면, 「본국력사」는 대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상고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대별 풍속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기획연재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풍속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문명화된 나라를 설계했던 상고시대를 조망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격발하고 본국의 국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국력사」의 상고사 대한 정리는 이를 서술한 표기 방식에서부터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본국력사」의 문답식 표기방식은 열다섯 편의 모든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시대별 풍속서술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상고사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집필자의 의도와도 결부된다. 해당 문답식 표기는 장지연의 주필시기 「본국력사」뿐만 아니라 「시평」과 「논설」·「기서」 등 다양한 지면에서 활용되었는데, 주필과 독자간 쌍방향적인 소통창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해조신문』이 지향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답식 형식은 동시기 『제국신문』의 학문론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역사학 관련 기사에서는 문답체가 아닌 종래의 편년체(編年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학 관련 기사에 문답체 구조를 적용한 『해조신문』의 전략은 이전 『제국신문』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었으며, 이후 발행된 『문답대한신지지』(1908.12.)를 비롯한 국내 지지학 관련저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 글에서는 초창기 『해조신문』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 연재물이자 장지연의 상고사 연구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본국력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국력사」 외에도 『해조신문』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논설과 기서 및 연재물에 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본국력사」 이후 장지연의 역사 저술 흐름에 대한 논의들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작업은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해조신문』,『대한강역고』,『대한신지지』,『대한자강회월보』,『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제국신문』,『기호흥학회월보』,『대한흥학보』,『문답대한신지지』,『점필재집』

구명숙,「해조신문과 공립신보의 상호텍스트성 연구」,『텍스트언어학』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1, 1~31쪽.
구자혁,「장지연의 자강사상」, 천관우 외『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66~104쪽.
김대룡,「해조신문의 간행과 교육론」,『한국사상과 문화』6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217~265쪽.
김명섭,「석농 유근의 생애와 민족운동」,『석농유근 자료총서』, 한국학술정보, 2007, 10~28쪽.
김복순,「『제국신문』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學知)의 타자성」,『여성문학연구』3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7~44쪽.
김생기,「장지연의 역사인식」, 천관우 외『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374~396쪽.
김영민 외,『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전집-해제』, 소명출판, 2003, 547~583쪽.
김영숙,「조선후기 악부의 유형적 성격」,『어문학』44·45, 한국어문학회, 1984, 31~60쪽.
김항구,「대한협회(1907~1910)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박 환,『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선인, 2019.
_____,『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 탐구당, 1995.
_____,『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
반재유,「근대신문 소재 해외 풍속기사연구」,『한국학연구』61,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21, 359~382쪽.
안종묵,「해죠신문의 광고에 관한 일 연구」,『한국언어학회』46-5, 한국언어학회, 2002, 43~72쪽.
유영봉,「점필재「동도악부」의 성격과 계승양상」,『동방한문학』29, 동방한문학회, 2005, 77~107쪽.
이훈옥,「장지연의 역사인식」, 천관우 외『위암 장지연의 사상과 활동』, 민음사, 1993, 249~307쪽.

A study of *Bongungnyeoksa* in the *Haejo Sinmun*

Ban, Jae-yu*

The *Haejo Sinmun* was a Korean newspaper published in Vladivostok, Russia, from February 26 to May 26, 1908. It recruited Jang Ji-yeon as the main writer from the beginning of its foundation, who was well-known as the main writer of the *Hwangseong Sinmun*. The *Haejo Sinmun* was not just a newspaper for Korean residents in Russia but an important media for the formation of domestic public opinion and the restor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The individual serials in The *Haejo Sinmun* showed the tendency of the newspaper and its main writer's intention. Among its serials, *Bongungnyeoksa*, which was serialized since its inception, is noteworthy in that not only it attempted to serialize Korean ancient history in order to cultivate the national spirit and raise national consciousness, but also it is possible to examine how protestant Confucianists recognize Korean ancient history. However, since *Bongungnyeoksa* did not specify its author, there is difficulty in discussing its background or meaning. Therefore, estimating Jang Ji-yeon as the author based on the timing, reference,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Bongungnyeoksa*, this paper reviews the unique narrative methods such as catechetical prose that he employed to effectively convey the customs of the Korean ancient history, and consequently discusses the meaning of serializing Korean ancient history in The *Haejo Sinmun*.

*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 HK Research Professor

The customs of the Korean ancient history that was contained in *Bongungnyeoksa* and the narrative methods to convey them are designs, through which we can see Jang Ji-yeon's intention to enhance the wisdom of Koreans and awaken their national consciousness against regulating newspapers in Korea by Japanese Empire. This is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Bongungnyeoksa* as an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 from which we can see the nature of the *Haejo Sinmun*.

Key words : *Haejo Sinmun*, Jang Ji-yeon, Korean residents in Russia, Vladivostok, catechetical prose

논문투고일 : 2022년 7월 19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8월 17일